

민 진 전	<h1>BUDDHANARA</h1>
----------------------	---------------------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매일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매일 둘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매일 셋째주 일요일 11시 전법기도 법회
 매일 넷째주 일요일 11시 108 대참회 기도 법회

불국사 콜롬비아 지역 법등 법회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Sun Meeting -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 매주 갖는 법회내용이 다릅니다 불국회로 연락바랍니다. -

이달의 법구경: - 비록 백년을 살지라도
 어리석어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지혜롭고 마음의 고요를 가진 사람이
 단 하루를 사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응맹정진하여 불국정도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3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종단소식

법전 중정예하 "수행교화 전념" 종도들에 신년교시 내려

7일 하례법회서 "종단발전 위한 각고의 노력" 당부

조계종 법전 중정예하는 갑신년 새해를 맞아 종도들에게 '수행과 교화에 전념' '승가교육 내실 도모' '보살행 실천' '승가 화합' 등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라는 교시를 내렸다.

중정예하는 7일 오전 경남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열린 불기 2548(2004)년 신년하례법회 법문에 앞서 “▲종도들은 수행과 교화에 전념하여 불조의 혜명을 계승 선양하고 중생을 널리 이익케 하라

▲종단은 승가교육의 내실을 도모하여 인천의 스승으로서 안목과 위의를 갖추도록 하라

▲모든 불자들은 지혜와 자비의 생활화를 통하여 항상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보살행을 실천하라

▲승가는 화합이 제일덕목이니 항상 육화(六和)로서 서로 화경(和敬)토록 하라”는 신년교시를 내리고 종단발전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주문했다.

중정예하는 이어 법문을 통해 “2003 년도에 종단에 어려운 일이 많았으나 총무원장 스님을 중심으로 종단 안정과 교육, 포교의 각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노고를 치하하고 “올해를 대화합의 해로 정하고 화합을 목표로 나라와 국민, 불교의 화합을 위해 여러 문제를 잘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정예하는 이날 신년하례식에서 총무원장 법장스님과 중앙종회의장 지하스님에게 금란가사를 하사하고 총무행정과 종단화합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발췌: 해인사

새해, 불자가 실천할 덕목

- 동서남북 상하 육방을 예배할때 부처님 가르침대로 공경하라

부처님이 왕사성 두꺼비 숲에 머물 때의 일이다. 선생이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아침마다 목욕하고 육방을 향해 예배를 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연유를 물으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동, 서, 남, 북, 상, 하 육방에 중생이 있으면 예배하고 공양하라. 그러면 그들도 너를 섬기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말을 듣고 ‘예배할 때는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동방에서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 자식이 부모를 대할 때는 1, 재물이 불어나게 해야 한다. 2, 부모를 대신해 많은 일을 해야 한다. 3, 하고싶은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 4, 불손하게 뜻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 5, 모든 것을 다 드러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는 1,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 2, 뒤를 보살피되 모자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자식에게 빚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때를 맞추어 결혼시켜주어야 한다. 5, 재물을 물려주어야 한다.

남방에서는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 제자가 스승을 대할 때는 1,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2, 가르침을 잘 받들고 따라야 한다. 3, 일찍 일어나 배움을 청해야 한다. 4,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5, 스승의 명예를 빛내야 한다. 스승이 제자를 대할 때는 1, 기술을 잘 가르쳐야 한다. 2, 빨리 가르쳐야 한다. 3, 아는 것을 다 가르쳐야 한다. 4, 좋은 곳으로 나가게 해야 한다. 5, 좋은 벗을 사귀도록 가르쳐야 한다.

서방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는 1, 어여삐 여겨야 한다. 2,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3, 장신구를 해주어야 한다. 4, 집안 일을 맡기고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 5,

아내의 친족들에게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는 1,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2, 일가친척을 잘 거두어야 한다. 3, 공손한 말씨를 써야 한다. 4, 남편이 귀가하면 격려해줘야 한다. 5,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를 준비해야 한다.

복방에서는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 주인이 하인을 대할 때는 1, 일을 능력에 맞춰 시켜야 한다. 2, 때에 맞춰 먹여야 한다. 3, 때에 따라 마시게 해야 한다. 4, 날마다 쉬게 해주어야 한다. 5, 병이 나면 치료해 주어야 한다. 하인이 주인을 대할 때는 1,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 2, 존경하고 받들어야 한다. 3, 재산을 축내지 말아야 한다. 4,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 5, 비위를 거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방에서는 친한 벗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 벗을 대할 때는 1, 사랑하고 공경해야 한다. 2,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3, 속이지 말아야 한다. 4, 선물을 준다. 5, 서로 가엽게 생각해야 한다. 상대방도 벗을 대할 때는 1,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 2, 곤궁해지면 도와주어야 한다. 3, 방일하는 것을 보면 충고해주어야 한다. 4, 나쁜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한다. 5, 급할 때는 서로 의지해야 한다.

상방에서는 시주와 수행자의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 시주가 수행자를 대할 때는 1, 문을 닫아놓지 않는다. 2, 오는 것을 보면 반갑게 맞는다. 3, 자리를 펴고 기다린다. 4, 맛있는 음식을 풍족하게 보시한다. 5, 법답게 후원해준다. 수행자가 시주를 대할 때는 1, 바른 믿음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2, 금계를 가르쳐야 한다. 3, 설법 듣기를 좋아하게 해야 한다. 4, 보시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5, 바른 지혜를 일깨워 실천토록 해야 한다.

육방을 예배할 때 이렇게 다짐하면 반드시 흥할 것이며 쇠하지 않으리라.”

-중아함 33 권 135 경 <선생경(善生經)> -

2004 년 올해에도 우리 불국사 식구들 모두는 이렇게 살아봅시다.

불교용어 공부: 발심(發心)

-깨달음 구하려고 마음 내는 것 무슨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음-

무슨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내는 것을 발심(發心)이라고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결혼 후 아이들을 키우던 어머니가 자식의 대학입시 공부를 지켜보면서 “나도 대학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도 발심이다. 평생 모은 재산을 소외된 이웃을 위해 혼연히 내어놓는 것도 발심이며, 간이나, 콩팥 등 자신의 신체 일부분을 남에게 보시하기 위해 마음을 내는 것도 발심이다. 또 물에 빠져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위해 ‘저 사람을 구해야지’ 하며, 물에 뛰어 들어 목숨을 구해주려는 마음도 발심이다.

대부분 발심은 마음을 내는 것이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마음은 긍정적인 일로 마음을 낼 때 사용한다. 이는 발심이 발보리심(發菩提心)의 약자로 ‘보리심을 내는 것’이란 뜻이기 때문이다. 보리는 깨달음, 보리심은 깨달음의 마음이니, 발보리심은 깨달음을 구하려고 마음을 내는 것이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가르치시길 ‘보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리심을 내는 것’이라 했다. 깨달음을 마음을 내는 자야말로 참다운 보살이란 가르침이다. 깨달음이란 근본 명제를 버려버린다면 아무리 난행고행(難行苦行)을 하고 중생을 구제하고 불국토를 건설한다 해도 보살이라 할 수 없다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발보리심이란 용어는 초기불교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대승불교운동과 함께 발현 일상에 널리 알려졌다.

발심과 관련,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이란 말이 우리의 눈과 귀에 자주 접하게 된다. ‘처음 마음을 발할 때 곧 정각을 이룬다’란 뜻이다. 즉 처음 발심한 그것이 변치 않고 그대로 있으면 곧 부처님의 경지라는 뜻이다.

모든 사람이 원(願)을 세우지만 대부분 그 마음은 쉽게 변하기 마련이다. 원래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그 원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불자의 첫 길은 발심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 그리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의지와 실현이 바로 불자의 길이다. 발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불교신문 박기련 기자

법회소식 NEWS

- 불국사 (Buddhanara Temple)에서는 그동안 정기 법회에 자주 나오시지 못하시는 신도님들을 위해서 소식지를 무료로 발송했었습니다. 현재 매달 소식지 발송건수가 50 건 정도입니다. 불국사 홈페이지에 매달 소식지가 올라와 있으니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사찰과의 거리상 한달에 한번이라도 오실수 있는 미조리주 와 일리노이주에 거주하시는 거주자 신도님들에게는 소식지 발송을 중지 하기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차질없으시기 바라고 그래도 받아보시고자 하시는 신도님들은 따로 사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찰에서는 2004 년 달력을 배부하고 있으니 잊지들 마시고 달력들을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 12 월 21 일 12 월 셋째주 일요일에 동기 기도 법회, 부처님 되신날일 2547 년부처님 성도재일 철야정진(12 월 27 일 밤 9 시에 입재해서 다음날 12 월 28 일 새벽 6 시에 회향), 그리고 2004 년 1 월 1 일 11 시에 가진 세알법회에는 변함없이 많은 신도님들이 법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 이루지 못한 계획들은 왜 이루지 못했는지 점검하고, 지난해의 계획들의 성과를 거울삼아 올해에 각자가 계획한 목표가 달성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한해 한해를 보냅니다.
- 인등기도 법회가 있는 1 월 둘째주 일요일에는 인등기도 법회 이후에 그동안 몇 달간 사경을 했던 “관세음보살 보문품” 사경기도 회향도 같이 갖겠습니다. 그동안 “관세음보살 보문품” 사경들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성불합시다.
- 1 월 셋째주는 전법기도 법회날 입니다. 셋째주에 갖는 교리공부에 차질이 없도록 각자가 노력합시다. 점심공양 이후에는 1 월 1 일날 있었던 세알법회와 오후에 있었던 웃놀이에 참석하지 못하신 불자님들을 위해서 웃놀이를 가질예정 에 있으니 연구들 많이 하시고 셋째주 법회에 참석해 주십시오. 물론 지난번처럼 푸짐한 상품도 있습니다.
- 콜롬비아 지역법등 법회는 법회장소가 확보될때까지 잠정적으로 법회를 쉬기로 했습니다. 법회장소에 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불자님께서서는 불국사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다섯째주 법회가 있을때에는 특별야외법회를 계획하고 있지만 2 월은 추운 날씨 관계로 2 월 다섯째주 법회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서 불국사를 후원하는 단체인 “불국회”가 새로운 운영진 선출을 했습니다. 회장님에는 법륜화 보살님, 그리고 총무에는 이묘경 보살님과 정혜주 보살님이 선출되었고 예년과 다름없이 총괄에는 김효례 (연화행)보살님이 수고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불국회 회원들은 전국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임원들이 각지역을 대표되는 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신심을 다지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불국사 신도님들은 빠짐없이 불국회에 연락을 하셔서 같이 활동했으면 합니다. 불국회 파이팅!
- 2003 년 한해동안 보여주신 신심과 정진, 그리고 화합 감사드립니다. 특히도 한국에서 묵묵히 불국사를 후원해주시는 불국회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진 부처님 말씀 전법의 공덕으로 소원성취 하시고 업장 소멸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